

종합과 극복·조화에의 의지

90년대가 시작되는 도정에서 무게있는 소설연구서 및 소설비평집 두권이 출간되어 관심을 끈다. 본고 국문과 출신인 신에 문학평론가 김중희의 연구서와 '한국소설의 낙원'의 신 연구와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이 그것이다. 근년의 우리 소설연구내지 비평이 다분히 정론적인 쪽에 치우쳐 왔음에 비추어 이 두권의 저서는 균형잡힌 비평안과 건설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 소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 및 해석 그리고 비평작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주목을 환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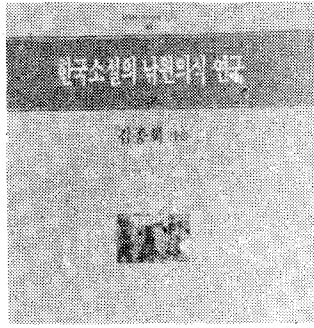
먼저 연구서인 '한국소설의 낙원의식연구'는 한국소설을 낙원의식이라는 주제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이란 무엇인가? 범박하게 말해서 그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낙원의 존재형태와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한국소설의 낙원의식'이라는 문학적 용어를 빌어 탐색해 나간 의의의 줄기'를 뜻하게 될 (동서P.11)이다. 그러기에 낙원의식의 추적은 그 민족 특유의 기층적인 정신사의 특징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한국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을 근대문학의 생김, 식민지시대, 현대문학의

시지들 세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다시 말해 허균과 박지원, 이상과 채만식, 이청준과 황석영 등 각각 그시대의 대표적인 소설가 여섯사람의 작품을 비교는 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저자는 허균의 '홍길동전'과 박지원의 '허생전'이 비판적인 현실인식에 의한 사회개혁의지와 초월자의 활약에 근거한 낙원지향성이 결합된 형태로서 이상적 낙원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이상의 '날개'와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가치기 전도된 세계에 대한 일체

적 상상력과 신화적 상상력의 변증법적 지양에서 그 이념적인 모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시말해서 정치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이 탁월하게 통합되고 고양되는데서 이방 소설의 바람직한 지평이 열릴 수 있음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비평집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에는 이러한 저자의 소설관이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드러나 있다. 이 비평집의 특징은 그것이 주로 현상비평 내지 실천비

평의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먼저 전3부의 제1부는 조정래, 전상국, 김원일 등을 중심으로 한 단단시대 소설론을 전개하고 있다. 제2부는 유평과 사상의 문학적 수용양상을, 제3

부는 황순원등으로 실재작가·작품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하면 비평가 김중희의 문학세계관은 과연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소설을 보는 열개가 현실과 꿈의 조화로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통합론적 관점 내지는 조화와 극복의 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충분히 고려한 내지 조화를 추구하는 비평 방법론 내지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다.



김중희 저 한국소설의 낙원의식연구 <문학이카데미>



김중희 저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 <교육사>

정론적 성격 탈피한 균형잡힌 비평안목 '한국소설...' 낙원소설의 구조적원리 발견

교리를 반전의 기법으로 드러낸 비평적 낙원소설이고, 또한 이청준의 '이러'와 '비화밀교' 그리고 황석영의 '장길산'은 현재를 살피는 진정성이 왜곡된 세계로 인식하여 개별자의 집단적 행동을 윤리를 바탕으로 성취해 나아가야 할 이상세계를 추구한 실천적 낙원의식의 소설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이방의 낙원소설들이 신화적 상상력 및 사회적 현실인식 가운데 하나를 주된 관점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소

극적 상상력과 신화적 상상력의 변증법적 지양에서 그 이념적인 모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시말해서 정치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이 탁월하게 통합되고 고양되는데서 이방 소설의 바람직한 지평이 열릴 수 있음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비평집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에는 이러한 저자의 소설관이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드러나 있다. 이 비평집의 특징은 그것이 주로 현상비평 내지 실천비

평의 면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먼저 전3부의 제1부는 조정래, 전상국, 김원일 등을 중심으로 한 단단시대 소설론을 전개하고 있다. 제2부는 유평과 사상의 문학적 수용양상을, 제3

서 평



박정만 시집 <외길사>

박정만 전집이 나왔다. 사후 20년의 일이다. 그가 생전에 내었던 시집8권과 유고시집 1권 등에 실렸던 시들을 꼼꼼하게 찾아 수록한 책이다. 그는 시집 외에 두 수필·동화 등을 쓴 평론가로서 알려졌는데, 이 책에는 그런 글들이 수록되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박정만이 낸 시집은 문단활동 20년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발간량이지만, 사실 발간성능은 1979년의 첫시집 '잠자는 돌'(고려원), 1986년의 두번째 시집 '맹'은 서정시들의 공명 소재인 남의 부채'라는 정황을 삼키시킨다. 삶은, 살아가는 길은, 삶의

비극적 인식의 변모 과정

이야 한다. 이틀래만 1968년 동안 이후 '맹'은...까지의 18년 동안이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비극적인 삶을 전통적인 가락속에 담던 시기로, 그 작품들이 과적이었던 때였고, 그 후 삶과 죽음을 떠나 돌며 하루 수심편을 써내던 절신경지'의 시양산 시기가 목숨 끊일 때까지 이어진 것이다. 편 외상 이들 각각 17, 27로 나누자.

소멸과 충족이 하나되는 초월세계 추구 恨의 성을 쌓아올린 전통적 서정시인

놓은 채'('한해살이 풀')에서 보듯, 시인은 자신의 삶을 한해살이 풀에 비유하고 있다. 제 삶의 의지하고 지향할 대상조차 분명하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점 우리의 많은 서정시인들의 공통 소재인 남의 부채'라는 정황을 삼키시킨다. 삶은, 살아가는 길은, 삶의

주제자인 나에게 길잡이해 줄 '당신'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의 시간 속을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행위를 일 뿐이다. 이같은 비극적 인식은 시인의 시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다. 한데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것이 그의 내면 속으로 그 비극적 인식의 세계에 서 지향해 날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가충전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할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서정시인들이 비극적 인식의 세계를 거듭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인 스스로를 그 세계속에서 견디게 하는, 비극적 인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박정만이 그 온전한 사해에 속한다. "오, 완전한 이 패국, /드디어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하고/무명의

어둠속에 들쳐들 진다./그러나 끝없는 싸움이 또 나를 불른다"('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에서 처럼 시인은 비극적 인식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밖에 없다. 그 비극적 인식의 세계는 넘을 일고 넘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버림받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의, 오래고 오랜 절망의 노래들로 하나하나 쌓여져 오온한 성이다. 이것이 전통적 서정시인 박정만이 비극적 인식의

세계를 구축해온 모습이다. 27: 비극적 인식속의 비극적 에너지를 이제 초월의 세계로 발산되고 있다. 여기서 초월의 세계란 현실의 상황을 놓고 더 높은 정신 영역으로 고양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절망이 상실된 세계로의 지향함을 의미한다.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사라진다

"('사월과 오월사이')에서처럼 사랑과 희망도 소설의 세계로 사라지는 것, 그 사라짐이란, 말을 바꾸면, '산에 산이 겹쳐서 또 하나의 산을 이루고' (만산은 첩첩)에서처럼 사람의 욕망이 침해되지 않은 무위자연으로의 귀일이다. 현실에서의 없음과는 정반대인, 모든것이 충족된, 부재하는 그대까지 자연스러운 충만의 세계로 간다. 그 세계는 다시, 보리 캄부기며, 섬진강 조약돌이며, 땅콩밭 땅콩들이 숨김없이 제 모습 드러내는 유연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소멸과 충족이 한 그리움을 이루는 세계, 죽음의 귀의와 유연으로의 회귀가 한 몸 이루는 세계를 거듭 엮어나가며 무수한 시를 쏟아내던 어느날 그는 진정 고통없는 세계로 돌아가고 말았다.

죽은 시인의 전집이라면, 후학들을 위한 문학사적 연구대상에 놓여져야 한다. 이 책은 박정만 시들이 구축해온 비극적 인식의 미학을 우리 문학사에 편입시키려는 후인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다만 후학들의 즐김과 공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박정만 연구자료들을 첨부소개하는 노고까지 덧붙여졌으면 싶었다.

박 덕 규 <동문시인>

현재소설 창살에 스미는 햇살 <2>

글: 오 완 진 <영문> 그림: 김 중 범

누군가 내무관 막사에서 총알처럼 뛰어오고 있었다. "박상병님 아십니까?" 그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고일병이었다. 동주는 군화에서 X만도까지한 그의 모습에서 비상이 걸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상했던대로 그의 입을 통해 김일병의 탈영소식이 재빠르게 전해졌다. 갑자기 동주는 무엇인가 빼앗긴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일병이 전입을 온 것은 몇 달 전이었다. 그는 김일병과 동기가 되었다. 어딘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 녀석이라고 동주는 생각했다. 동주는 잦은 군모를 털며 상황실 복도에 들어섰다. 상황실을 부르는 중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문에 연락해봐! 이 새끼가 죽을려고 환장했나, 아직도 안 들어와!"

동주가 비상등이 반짝 거리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상황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주는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중대장의 싸늘한 눈 빛이 날아왔다. 그의 눈은 멀리서 가득 차 있었고 약간 다른 입이 잠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떤 결의를 하는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에서 동주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동주는 힘찬 눈초리를 뒤로 하고 상황실을 나왔다. 침침한 불빛이 복도를 짙게 메우고 있었다. 벽면에 걸린 근무 편성표에서 머리 잘린 듯들이 날카롭게 번득이고 매달린 명패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명패에서 반사 된 빛이 무거운 걸음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내무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움직임이 팽배한 공기속으로 잠겨 버렸다.

"아! 니 혼자 사는 군대나?" 고창범 하나가 짙은 비어를 내뿜으며 말했다. 뒤 이어 허병장이 두고있던 바둑알을 집어던졌다. 빛나간 바둑알이 창문에 부딪치면서 마치 일제 사격시 총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날렸다. 몇 개의 바둑알이 내무반 바닥에 떨어져 구르다가 멈추어 섰다. 왜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동주는 알겠 같았다. 곧 바로 튀어나온 허병장의 소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 김일병 그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특별로 말하더라. 그 자식 안 뛰었으면 내가와 이따위 고생을 하느라 말이다. 내가 뭇 바라고 군대에서 그들 맘시 행이를 치나 그 말이다." 동주는 등줄기가 따끔거리는 비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감정을 갖게된 것은 폐쇄된 세계에서 단순해질 수 밖에 없는 공간적인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동주는 생각했다. 그것은 압박·단순한 군생활 중 조금이라도 더 구속을 주는 비상동원-에 염증을 느끼는 결과였다. 그렇지만 다같이 속박받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조그마한 알력과 지배의식에 젖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동주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억압은 가득찬 원로이며, 그것은 부조리한 사회에서부터 나온다면 김일병의 말이 생각났다. 졸병은 군화를 신고 X만도를 메고 밀대를 밀지만 고창범은 메리야스 차림에 바둑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의 부조리한 모양새였다. 동주는 내무반에서 나왔다. 터진 입술 위로

차거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알몸으로 죽을 줄 아는 나무들이 검은 진액을 흘리고 있었다. 검은 하늘이 무겁게 내리누르고 산발한 가지들이 그 중압을 뚫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쓰러진 것들이 서고 연극은 계속 이어져나갔다. 핏빛으로 가득찬 공간이 광배한 긴장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동주는 무대 뒤로 갔다. 비상등 하나가 좁은 계단을 밝히고 있었다. "그래, 생활하기는 어떠냐?" 한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깍지않은 수염이 윤설거렸다. 동주는 소주잔을 들었다. 마치 막힌 목구멍이라도 뚫려듯이 쏟아내고 있었다. "뭘 같소?"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술과 오물에 젖은 땀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뭇잎 벽면에서 낮익은 문구들이 어지럽게 기고 있었다. 구호, 선동적인 문구들...산자여 따르라... 귀퉁이에 자신의 화고 이름도 쓰여있었다. "이런 연극의 매제지가 뭐니까? 한 노동자의 삶을 그란것 같은데." "그래 맞아, 억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사는 한 노동자가 깨우치고 떨쳐 일어서는 의식적인 면을 그려서, 의식을 깨우침은 곧 삶이야. 아직도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속박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연극을 통해 그것을 알려야 해."

"그것이 연극의 본성입니까?" "본성이라...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계몽하고 선전하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맨 우선적인 욕구는 각자가 얼마나 속박받으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사회 모순속에서 움바르 게 서는 순서일 거야.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함께 가자는



선전적인 매체로 연극이 있는거고 그런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한선배는 담담하게 말을 했다. 동주는 연거푸 소주잔을 털어내고 있었다. 언젠가 가장 먼저 연극이 보여줘야 할 것은 자신이 억압과 속박의 대상 이란것을 깨우쳐주는 것이라고 말하던 김일병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해방이라고 말했다. 동주는 그런 속박없이 사회에 대한 증오로부터 오는것이라고 몰랐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동주는 그의 생각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그만큼 억압을 받으며 살고있는 것이라고 동주는 생각했다. 그에게서 일말의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 억압을 뚫고 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배님같이."

"물론 많이있지. 수 많은 선배 동지들이 있었고 지금 각처에서 옳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있지. 하지만 세상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모두 함께 가야만 하고 함께 싸워야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 나날이잖아? 모두 함께 가야만하고 함께 싸워야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계 속>

「맥스웰」만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

젊은 가슴이 먼저 감동을 느낄때 — 캔을 열면 가슴을 적셔오는 맥스웰의 향기 맥스웰 캔커피만의 청량감으로 맥스웰 캔커피만의 또다른 느낌으로 기분까지 새로워지고 싶다. 정통커피유료 맥스웰캔커피 — 커피의 명가 동서식품이 만듭니다.

커피를 느낄때 언제나 맥스웰 캔커피

東西食品